분열 · 갈등 극복해 화합의 시대 만듭시다

중생 무명 집착 벗어나 지혜의 눈 갖추라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부처님께서 처음 탄생 하실 적에 마야부인 옆구리로 금빛 몸 나투시니 아홉 용이 한꺼번에 향수를 뿌렸고 성큼 성큼 사방으로 걸음 하니 둘레에는 연꽃이 솟아올랐네. 최후로 제일기(第一機)의 법(法)을 베푸시니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홀로 높음이라 하심이여!(天上天下 唯我獨尊) 고금(古今)을 통해 이를 지나갈 자 누가 있으리오. 거룩하고 거룩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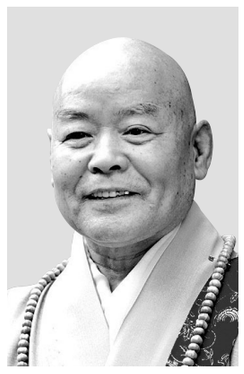
오늘은 무명(無明)의 사바세계에 지혜(智慧)의 광명(光明)으로 부처님께서 강탄(降誕)하신 인류정신문화의 날이며 환희가 충만한 날입니다. 고통의 바다에 빠진 중생들을 위해 대자대비(大慈大悲)의 연민으로 참나 선언과 참된 생명본연을 만유법계에 천명(闡明)하신 것입니다. 이는 본래 생사가 없건만 몸소 생사로써 중생들이 무명의 집착에서 벗어나면 '본래 부처' 임을 보여 주시기 위해 출세한 거룩한 서원(誓願)입니다.

모든 인류(人類)시여!
큰 지혜와 공덕(功德)을 누리고저 할진대, 일상생활(日常生活)속에서 오매불망 간절히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인가?' 하고 의심하고 의심할 지어다. 금생에 지혜의 눈을 갖추지 못한다면 어느 생에 다시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으리오! 필경일구(畢竟一句)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萬古碧潭空界月(만고벽담공계월)은
再三撈 蚪應知(재삼로록시응지)리라.
만년이나 오래된 푸른 못 속 허공중의 달은
두 번 세 번 건져 봐야만 비로소 알리라.

개개인 삶 반성하고 수용력 길러 이웃과 함께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왜, 오늘 부처님은 사바에 오셨는가? 중생의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인 번뇌는 왜 일어나는가? 그 무슨 사유로 삶과 죽음의 극단을 경험하게 되는가?

부처는 이상향의 정토를 가르쳤는데, 중생은 무명(無明)의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삼독(三毒)의 암흑으로 무지한 혼돈의 바다에 빠져서, 빛을 찾으려는 노력조차 불가능한 범부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모든 중생이 행복이라는 희망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2500년 전부터 영산회상(靈山會相)에서 혼신의 힘으로 사자후를 토하고 있는데, 중생은 궁극의 불성(佛性)을 인지하려는 노력조차 못하는 범부이기 때문입니다.

부처가 중생과 하나의 진리체임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인간으로 현신하시어 수많은 교화방편을 보이셨는데, 중생은 영겁동안 쌓아온 불가사의한 업연(業緣)의 장막에 가려서 밝은 빛을 보지 못하는 범부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불비시식(不非時食)과 발우공양으로 자제력을 겸한 건강수행은 물론 자연환경 가꾸기까지 실천하셨는데, 중생은 화려한 음식으로 포식하고, 일회용품 남용 등으로 자신은 물론 지구촌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는 범부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인류 상생의 공동체 영위를 위해서, 경계가 없는 동체대비(同體大悲)를 말씀하셨는데, 중생은 나르시시즘(自己愛)의 이기심으로 철옹성을 쌓아서, 수용하고 화합하려는 마음내기가 어려운 범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하기에 부처님께서 오신 거룩한 뜻의 실천이 더욱더 절실하고 빛이나 보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깨침의 연기사상은 현대과학으로도 하나씩 증명이 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진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중생은 부처님의 실천적 수행과 말씀을 따름으로써,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수용력을 길러 이웃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는 밝은 마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불국토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불자들 마음에 다시금 되새겨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삼라만상이 평등하고 차별 없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꽃잎에 맺힌 이슬은 붉은 구슬처럼 빛나고, 푸르른 신록이 마치 비단을 펼친 듯이 온 세상을 장엄하고 있습니다. 봄볕이 산과 골짜기를 가리지 않고, 나무와 풀을 따로 비추지 않는 것처럼, 천지의 이치는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 없으니 삼라만상의 모습이 또한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본래 자유롭고 평등한 불성(佛性)의 소유자이며, 모두가 존귀하고 스스로 온전하여 소중한 존재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인류에게 전하는 깨침의 사자후입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존재의 실상을 밝혀 주셨지만 세간과 중생들은 언제나 상(相)을 내는 일로 분주합니다. 서로 장벽을 만들고 편을 갈라 반목하면서 스스로 그 속에 갇혀버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들은 갈등과 불화로, 국가와 민족은 대립과 전쟁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공멸의 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온갖 차별하는 마음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시비분별을 멈추면 본래부터 완전한 자성(自性)이 모습을 드러내고, 자성이 청정한 줄 알게 되면 순간순간 대하는 온 중생을 부처로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본래 면목을 드러내니 누구 하나 주인공 아님이 없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이라는 이치를 바로 알면 지혜와 자비의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광명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우리 모두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사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온 누리와 시방법계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기를 천만 불자 및 국민여러분 모두와 함께 봉축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무척이나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국내외 경기 불황으로 서민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정치적인 불안이 우리 사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국민의 여망에 의한 국가지도자가 새로 선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국가적 역량이 모아질 것입니다. 새로운 도약으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이 되면 우리는 연등을 밝힙니다. 연등은 번뇌와 무지로 가득 찬 사바세계를 진리의 광명으로 밝게 비추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등을 켜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가진 내면의 지혜를 밝히고 부처님의 자비로움으로 온 세상이 밝고 향기로운 세계가 되기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천만불자와 국민 여러분!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꽃이 피면 향기가 연못에 가득합니다. 진흙 속에서도 항상 맑은 본성을 간직하고 있는 연꽃처럼 우리도 청정한 마음과 보시행의 실천으로 나라가 부강하고 국민이 건강한 향기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합시다.

참 생명, 참 행복의 길로 나아가자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불자와 국민 여러분! 청정한 대지 위에 환희의 노래 울려 퍼지고 만 중생의 복락이 일만의 꽃으로 피어나니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일체의 탐욕과 번뇌를 내려놓고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합시다. 부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만생명의 존귀함을 가르치시고 그 존엄한 생명의 실상이 무수무량의 지혜와 자비임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생의 무명이 깊고 깊어 참 생명의 실상을 외면한 채 욕심내고, 성 내고, 화를 내며 무명의 업장을 키워가니 중생계는 어느 하루 편할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증유의 혼란과 고통의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만들어가려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우리는 좀 더 마음을 열고 지혜를 밝혀 나와 이웃과 우주가 하나임을 깨치고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며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의 환희와 축복으로 우리 모두 마음을 열어 손에 손을 맞잡고 부처님이 열어 보이신 참 생명, 참 행복의 길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주인공으로 삼시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부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부처인 세상은 차별이 없으며 분별도 없고 모두가 주인공인 밀엄정토입니다.

우리가 처한 시대적 가르침으로 깨우쳐주신 부처님을 찬탄하며 맞이하는 오늘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지혜를 밝힙시다.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받들어 나와 이웃, 생명을 가진 모든 유정들이 부처인 것을 알아 자비심으로 은혜를 나눕시다.

지혜롭고 자비한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는 보살행(菩薩行)이야말로 참다운 공양이요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불자의 자세입니다.

바른 믿음과 깨달음, 올곧은 실천과 증득으로 인과의 이치를 가르치신 부처님처럼 우리도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며 부처님의 가없는 자비광명과 진각성존 회당대종사의 무진서원으로 인류에 평화가 깃들고 국가와 사회, 가정에도 서원하는 것이 모두 성취되고 복덕 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

모두 화합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



부처님께서는 온 우주의 모든 생명에게 자유, 평등, 행복이라는 희망을 열고, 참 나를 찾아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화와 갈등은 탐, 진, 치(貪.嗔.癡) 삼독이 그 원인입니다. 탐욕(貪慾)으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나고, 성냄으로 인하여 싸움이 일어나고,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사리(事理)를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괴로운 과보(果報)는 반복되며 중생은 고해(苦海)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층 · 지역 · 빈부 · 이념 · 종교 등의 모든 갈등이 서로 표출되어 충돌을 일으키고, 인류는 불안과 공포(恐怖)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들은 부처님의 자비와 보시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나누고, 서로 감싸 안으며 화합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섭시다.

진리의 법음이 온 세상에 울리고, 진리의 법등이 온 세상을 밝히는 불국토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서원합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눈을 뜨고 하늘을 보라 빛나는
태양은 늘 우리를 비추고 있으니.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와 이웃을 인도하여
청정한 불국토를 실현하는 일
그 자리에 부처님은 오십니다.

어둡고 차가운 그늘에 가려
힘들고 지친 이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 부처님은 오십니다.

진흙 속에서 때 묻지 않는
연꽃의 청정함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기도하는 그 자리에 부처님은 오십니다.

중생이 부르기 전에 이미 와 계신
그런 부처님을 만나는 날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엽시다

회정 정사
진각종 총인



눈을 뜹시다.
마음의 눈 뜨고 자기를 바로 봅시다.
귀를 엽시다.
마음의 귀 열고 내면의 소리를 들읍시다.

마음을 열어 자기를 바로 보고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 참 주인공인 자성법신(自性法身)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을 받들어 찬탄하는 오늘 인연과(因緣果)의 이치를 바로 보고 깨달아 청정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이 자리가 참되고 바른 진리이며 진정한 이치인 심인(心印)의 자리입니다. 심인(心印)은 무명을 밝히는 지혜요 나눔을 행하는 자비이며 정진을 이끄는 용기입니다.

삼밀수행(三密修行)으로 심인(心印)을 찾고 저마다의 가슴속에 자성(自性)의 등을 밝혀 자기 수행(修行)과 실천(實踐)으로 지혜(智慧)와 복덕(福德) 충만하게 하며 뜻하는 바를 원만히 성취할 수 있도록 서원(誓願)하고 정진(精進)합시다.

따뜻한 손길 전합시다

효강 정사
총지종 종령



오늘은 찬란한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신 부처님께서 연꽃처럼 맑은 향기와 대자대비하신 원력으로 무명의 어둠에 쌓여있는 어리석은 중생을 구제하시고자 나투신 참으로 뜻 깊고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답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하고, 우리 모두는 어떠한 형태로든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함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함께할 수 있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의 작은 도움을 기다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보지 못할 뿐입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어떤 이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자비행의 상호작용 속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우리 불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주위를 돌아보고 따뜻한 손길을 전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인간답게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